

김윤덕 장관,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면담

- 북남고속철도 타당성조사에 우리기업 참여 지원
- 인적 교류 및 스마트시티·ITS 분야 한-베트남 미래 인프라 협력 확대

-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6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쩌 홍 민 (Tran Hong Minh)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에 우리 기업 참여를 지원하고, 스마트시티·ITS 및 양국 간 인적 교류 등 주요 국토·교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- 김 장관은 지난 7월 양국 장관 간 면담 이후 제1회 한-베 철도협력회의 개최 등 양국 간 철도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설명하고, “북남 고속철도 사업에서도 양국이 더욱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”고 밝혔다.
- 특히, 한국이 고속철도 설계·건설·운영 및 기술자립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보유한 한국의 공공기관과 기업이 북남 고속철도의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.
- 또한, 김 장관은 “한국은 도시 성장과 교통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시티를 발전시켜 왔다”고 평가하며, “K-City 네트워크 협력사업* 등을 통해 한국의 정책 경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도시·교통 분야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- * K-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, 스마트시티 계획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실증을 지원

- 아울러, 베트남 측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‘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과정’ 프로그램을 소개하며,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.

*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대상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교육하고, 졸업생은 본국 복귀 후 인프라 분야 부서에서 근무하며 현지 정보 공유국내 기업과 네트워크 역할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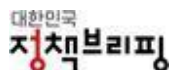
- 베트남 측은 “한국 방문 일정 중 스마트시티·ITS 현장 방문이 인상적이었다”라고 언급하며, “베트남은 행정 체계 개편에 따라 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환영한다”고 밝혔다.

- 이어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,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국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.

-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자 해외 건설 부문 아세안 1위 협력 국가로, 동남신도시 개발사업, 호치민 메트로 철도 차량 공급 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 중이다.

-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시개발, 철도 등 인프라 분야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 ‘제1회 한-베트남 인프라·기술 협력 위원회’를 개최하고, 주요 협력 의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	책임자	과 장	최정원 (044-201-3526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은 (044-201-3530)
	철도국 철도정책과	담당자	주무관	황병철 (044-201-3532)
		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		사무관	현기창 (044-201-3947)
			주무관	김남우 (044-201-4645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| TOMORROW